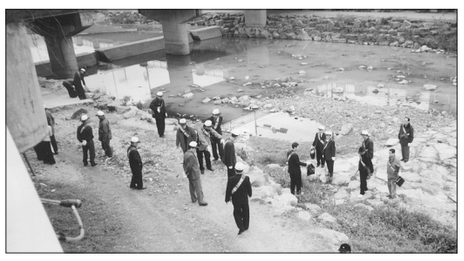
# 시도 · 지역회 소식

### 서울 경우회

지난 12월 15일 김정웅 회장을 비롯한 31개 지역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겸한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서울경우회는 중앙회 이사회 개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당면현안 등을 토의했다.

한편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우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선배님들이 남긴 업적을 바탕으로 조직발전과 전현직 유대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경우회



지난 12월 15일 이장오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임원, 자문위원 등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천 일대에서 하천 정화운동으로 쓰레기와 오물 줍기 등 자연보호활동을 펼쳤다.

한편 광주 경우회는 이날 행사종료 후 화순군 북면 백야산 6.25 전적지에서 송년회를 가졌는데, 유상종 자문위원은 이날 행사경비를 전액 찬조함으로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전남 경우회

최근 이광종 회장을 비롯한 시도회 임원 45명, 조무삼 순천경우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명 등 85명이 참가한 가운데 순천역 광장과 승주 선암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 가두 캠페인과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경우회 활성화 및 회원 친목도모에 주력할 것을 결의했다.

### 제주 경우회

최근 관내 어리목 등산로 일대에서 김영중 회장, 허순욱 제주 경우회 사무국장, 현봉석 산악회장 등 회원 1백 여명은 프랭카드를 설치하는 한편 어깨띠를 착용하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 참전경찰 유공자회

지난 12월 21일 경우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제 26차 이사회를 갖고 2004년도 사업결산 및 2005년도 사업계획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신임 부회장에 대한 선임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구홍일 중앙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경우의 날 포상자에 대한 시상을 가진 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전주중부 경우회

최근 전주중부 경찰서장실에서 김광웅 회장(중앙회 감사), 송완식 서장, 경우회 임원 및 경찰서 각 과장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현직 간담회를 갖고 현직 치안업무 지원 방안 및 전현직 유대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 중부 경우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퇴직 경찰 및 선배 경우회원에 대한 先敬後愛의 예절과 예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말 연시 거리질서 및 치안 확립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과 방범활동 등 경찰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인천 경우산악회

지난 12월 14일 이윤기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서산시 소재 팔봉산을 등반하는 한편 철새 도래지 천수만, 무학도사가 기거했다는 간월도 등을 견학했다.

### 경기양평 경우회

최근 어경찬 회장, 이동교 경기 경우회장, 전흥배 양평경찰서장, 내빈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역한 전의경 동우회 창립 총회를 가졌다. 이날 어경찬 양평경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발족한 동우회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창립 총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회원 52명이 힘을 모아 동우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창립된 양평 전의경 동우회는 회장 정영인, 부회장 이기수, 감사 전영학, 사무국장 신교정, 이사 이석용외 3명에다 회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속초해경 경우회

최근 김기양 회장과 정형민 자문위원장, 현직 경찰관 등 전현직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비정 및 어선을 이용한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자연사랑을 실천했다.

### 부산경남 여경회

최근 김필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대청공원 충혼탑을 참배하는 하는 한편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 충남부여 경우회

최근 유여상 회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경찰 충혼탑과 대둔산 승전탑을 참배하고 전사 경찰관들의 명복을 빌었다.

### 광주남부 경우회

최근 김명우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시 인근에 위치해 오염도가 가장 심한 봉선동 재석산 일대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자연보호와 관련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등산로와 계곡 등지에 버려진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광주남부 경우회는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안보교양과 좌담회를 갖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 전북무주 경우회

최근 서일남 회장을 비롯한 회원 44명은 대천해수욕장과 석탄박물관, 백마강 등 일대를 관람하는 단합대회를 가졌다. 한편 박영근 회원은 이날 참석자들을 위해 모자 70개를 기증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충남공주 경우회

최근 진기봉 회장 등 회원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령시 소재 전사경찰묘역을 참배하고 고인들의 넋을 추모했다.

### 전남광양 경우회

광양 경우회가 김운철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관내 도로변에 심어 놓은 동백, 가시, 해송 등 가로수에 대한 지주목 세우기와 정비 가치치기, 비료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봉사하는 경우회 이미지를 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미지 제고에 지역회원들은 『경우회원으로서 더욱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병률 광양경찰서장은 최근 경우의 날 기념식 거행에 적극 협조하고 오찬을 베풀어줘 지역회원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 대전중부 경우회

최근 2004년도 하반기 정년 퇴임하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장 최용태 경위 등 8명을 관내 음식점으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회원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 충북괴산 경우회

최근 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故 강대유 참전경찰 유공자 회원의 묘소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묘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추모비 건립은 평소 경우회 발전에 공이 많은 강 회원의 묘비 제막을 위해 회원 성금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경우들의 호응을 얻었었다.

### 서울수서 경우회

최근 임한배 회장, 김종도 자문위원장 등 임원진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송파구 석촌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수사본부를 방문하고 범인검거에 수고하는 경찰관들을 위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 서울중랑 경우회

최근 김택제 회장, 김종원 서장, 민은식 자문위원장 등 전현직 경우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갖고 경우회 발전을 결의했다. 한편 중랑 경우회는 관내 불암산에서 송년 이사회를 갖고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에도 조직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 전주중부 참전경찰유공자회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김정근 회장을 비롯한 김성근 전북충의회장, 김광웅 전주중부 경우회장 등 회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갖는 한편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특강을 가졌다.

※ 2004년도 경우의 날 행사 및 구홍일 중앙회장의 각 급회 방문 기사는 소재의 동일성과 기사의 과다로 게재하지 못함을 양지 바랍니다.

---

현장탐방

부산해경 警友會

## 영원한 海警精神 속에 前·現職이 하나로

### 사찬수 회장, 정겨운 모임으로 만들어

최근 구홍일 중앙회장 방문시 함께한 전·현직 警友들

부산해경 경우회가 지난 85년 4월 창립 이래 회원 1백 24명이 영원한 海警정신을 바탕으로 전현직 유대강화, 그리고 경우회 활성화와 회원친목도모에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사찬수 회장은 『지난 날 모진 풍파 속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선후배 경우들이 끈끈한 동료애로 뭉쳐 아끼고 위로하며 마음을 주고 받는 정겨운 조직이 海警 경우회』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창설된 해양경찰의 本廳이 지난 79년 인천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이곳 출신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 다른 해경 경우회 보다는 회원들의 수가 많을 뿐만아니라 해경청 정비창, 부산·울산해양경찰서가 함께 하고 있으므로 여타 해경서 경우회 보다 그 역할과 활동범위가 큰 것이 특징인 부산 해경경우회는 그 산하에 자생조직으로 洋友會, 情友會, 機友會, 洋志會 등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어 회원들간의 결속력이 그 어느 경우회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해경 경우회는 전현직 유대강화를 통한 해경정신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을지연습시 위로와 격려 방문은 물론 해경서와 정비창 행사에 적극 참여해 위문하며, 원로회원과 理事들의 현장체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전현직이 함께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있다.

부산해경 경우회는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임원들의 會 운영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해경 경우회는 이 이사회를 통해 경우회 운영사항을 토의하고, 이사회를 주축으로 경우회의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동료의식을 높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퇴직자들에 대한 경우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위해 정년퇴직자들에게 등록 권고문을 발송하는 한편 당해연도 퇴직자들을 이사회에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자생 조직을 활용해 경우회 등록을 권장하기도 한다.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축적이 꼭 필요하다』는 사찬수 회장은 기금 1억원 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약 5천여만원으로, 기금 축적을 위해 불요, 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평생회원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자문위원 영입, 수익사업의 모색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산 해경의 모범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최근 이곳을 방문했던 구홍일 중앙회장은 『전현직간의 유대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경우회의 조성된 기금 액수 또한 많아서 놀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현직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찬수 회장은 『전현직 유대강화 방안 지속적 강구, 경우회 기금 증식을 통한 사무실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경우들이 후배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 判例

###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퇴근 종료"

**서울행정법원, 공무상 사망 아니다 판결**

직장인의 '퇴근'은 집이 있는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퇴근후 귀가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 공무원 정모(당시 39세)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퇴근중에 발생한 공무상 사망이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시 직장에서 두사람 몫의 일을 하느라 과로했고 초과근무도 많이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혈관계 질환이 나타났고 의식을 잃어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공무상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에는 퇴근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례가 없어 독일의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 9월 관세청으로 전보된 박씨는 남북육로개통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느라 매달 40~9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했으며 지난해 2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교부 등을 위해 수원에 갔다 대전으로 돌아와 대학동창과 함께 귀가하다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

### "비상근무 납치소동' 경관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비상 경계근무 기간에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오인 신고를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 후 전국 경찰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납치 오인 소동'을 벌였다가 이전의 무면허 운전까지 문제가 돼 해임당한 경찰관 임 모(48세)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납치신고 사건은 원고가 과음한 나머지 자신이 납치됐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생긴 소동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실제로 납치됐고 범죄피해자에 불과한데도 이를 해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고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공용차량인 112 순찰차를 운전했으며 국회의 대통령탄핵의결로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중대한 시기에 과다한 음주를 하고 납치소동을 일으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면 해임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동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자다 새벽 0시30분께 가족에게 전화해 "내가 납치된 것 같으니 112에 신고하라"고 말했으나 인근 경찰서 경찰관들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욕설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다가 오전 7시께 직접 차를 몰고 귀가했으며 경찰은 착각이 빚은 소동으로 결론 내렸다.

경우신문 구독신청 ☎ 02)2234-1881